

## 타이거 우즈의 '황제 골프' 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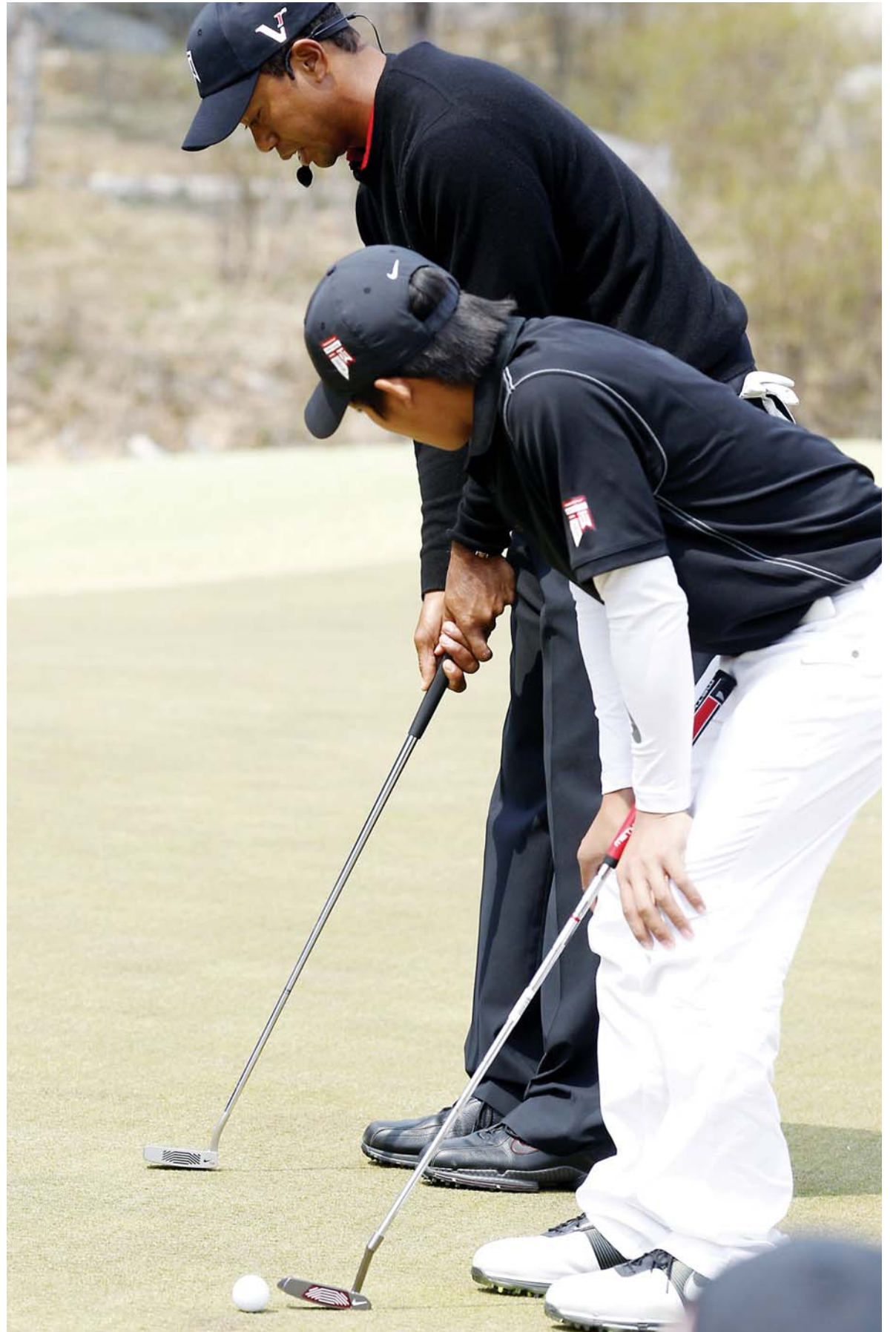
# “퍼팅은 오른손... 볼 스피드 일정하게”

### 한국 찾아 주니어 골퍼들에게 원 포인트 레슨

“9개의 구질로 샷을 날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샷은 똑바로 보내는 샷입니다.”  
한국을 찾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14일 강원도 춘천 제이드 팰리스 골프장에서 자신만의 비법을 공개했다.  
우즈는 “퍼팅할 때 양손에 고르게 힘을 분배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오른손만으로 퍼트한다는 생각으로 친다”며 “하지만 친구인 스티브 스트리커(미국)는 왼손으로만 퍼트한다는 생각으로 친다”고 말했다.  
우즈는 이날 검은 모자에 빨간 T셔츠, 검은 바지 차림을 하고 제이드 팰리스 골프장 10번홀에 카트를 타고 나타나, 오전에 주니어 골퍼 6명에게 레슨을 하고 오후에는 나이키 측이 초청한 500여명의

팬클럽들을 상대로 골프 클리닉을 연 뒤 저녁에 전용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다음은 좋은 퍼트와 샷을 위한 우즈의 조언들이다.  
▲퍼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볼의 스피드를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그린의 라인을 잘 읽었다고 하더라도 볼 스피드가 일정하지 않으면 볼은 홀로 가지 않는다.  
▲퍼트 연습을 할 때 티 두 개를 퍼터 헤드 길이로 꽂아 놓고 연습하라. 그러면 퍼터가 일정한 궤도로 움직이는 것을 도와 준다. 또 퍼터 페이스의 각도를 항상 지키도록 노력하라.  
▲퍼트를 할 때 오른손만으로 친다는 생각으로 친다. 물론 일반적으로 양손으로 퍼터를 하라고 하지만 선수마다 다르다. 내 친구 스트리커는 나와는

반대로 왼손만으로 퍼터를 한다는 생각으로 친다.  
▲퍼터를 먼저 지면에 놓고 나중에 몸을 정렬하라. 이것은 어릴 때부터 내 아버지가 강조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항상 같은 패턴으로 퍼트를 할 수 있다.  
▲샷을 하기 전 어드레스를 할 때 왼쪽 발을 열어 줘라. 왼쪽 발이 닫히면 중심이동이 안돼 샷 한 뒤에 체중이 뒤에 남게 된다. 왼쪽 발을 열어줌으로써 체중이동을 잘 할 수 있다.  
▲샷 연습도 중요하지만 게임을 운영하는 법을 배워라. 샷 연습은 못하더라도 쇼트게임과 퍼트 연습은 항상해야 한다.  
▲스윙 스피드를 높이려면 팔을 몸에 붙여 스윙하라. 피겨 선수들도 팔을 넓게 벌리고 제자리에서 돌면 속도가 느려지고 팔을 붙이면 빨리 돈다.  
▲초보자가 통이던 연습을 할 때는 100야드만 보낸다고 생각하고 작게 휘둘러라. 이 동작이 몸에 익으면 점점 큰 스윙으로 옮겨가라. /연합뉴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14일 오전 춘천 제이드 팰리스 골프장에서 나이키 골퍼 코리아 주최로 열린 ‘메이크 잇 매터(MAKE IT MATTER)’ 투어에서 주니어 골퍼에게 자신만의 퍼팅 비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프로 2년차 이승현 깜짝 1위

KLPGA 롯데마트 오픈 1R  
최나연 2연더파 공동 19위

프로 2년차 이승현(20·하이마트)이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막전인 롯데마트 여자오픈(총상금 5억원) 1라운드에서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깜짝 선두’로 나섰다.  
이승현은 14일 제주도 롯데 스카이힐 제주 골프장(파72·6204야드)에서 개막한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8개의 버디를 잡는 동안 보기는 1개로 막아내 7언더파 65타를 찍어냈다.  
강민주(21)와 권애리(21·롯데마트)가 선두에 2타 뒤진 5언더파 67타로 공동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KLPGA 상금 순위 2위 양수진(20·넵스)과 3위 안신애(21·비서카드)를 비롯해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랭킹 16위에 오른 유

선영(25·한국인삼공사) 등 9명이 4언더파 68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LPGA 투어 상금왕과 최저타수상을 차지한 최나연(24·SK텔레콤)은 보기 1개에 버디는 3개에 그쳐 2언더파 70타로 선두에 5타 뒤진 공동 19위로 불안하게 출발했다.  
또 지난해 한국투어에서 상금왕을 차지하고 나서 일본에 진출했던 이보미(23·하이마트)도 이번 파에 그쳐 공동 36위에 그쳤다.  
이승현은 4번홀(파4)에서 14m짜리 버디 퍼팅에 성공한 이승현은 8번홀(파3)에서도 티샷을 올컬 왼쪽 1m 거리에 떨어뜨려 버디를 낚아 전반에만 3타를 줄였다.  
이승현은 10번홀(파4)과 11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17번홀(파3)에서 첫 보기를 범했지만 18번홀(파5)을 버디로 마감하며 기분 좋은 선두로 1라운드를 마쳤다. /연합뉴스

박도형·조세미 男女고등부 우승  
광주시골프협회장배 학생골프

광주시골프협회장배 춘계 학생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광주시골프협회(회장 안두일)가 주최한 춘계 학생골프대회는 지난 12~13일 화순클럽 900 골프장에서 진행됐으며, 160명의 학생이 참가해 경쟁을 벌였다.  
살레시오고 박도형은 남자 고등부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최우수선수에 선정됐고 여고부 우승은 서강고 조세미가 차지했다.  
정대진(조대부속중)과 백수빈(송일중)이 각각 남중부·여중부에서 우승했고, 초등부에서는 김호산(교대부설초)과 문서형(오정초)이 각각 남·여부 1위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경태 日 개막전 1R 공동선두

지난해 한국인으로는 사상 첫 일본 골프 상금왕을 차지했던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가 2011년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개막전인 ‘도켄 홈페이지 트립 2011’ 1라운드에서 공동 선두에 오르며 시즌 첫 승을 향한 상승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경태는 14일 일본 미에현 구와나시의 도켄 타도 골프장(파71·781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몰아치며 6언더파 65타를 쳤다.  
이로써 김경태는 이글 1개와 버디 4개를 낚은 일본의 가타야마 신고(38)와 동타를 이루며 공동 선두에 올라 상금왕 타이틀을 수성의 첫 시동을 제대로 걸었다.

1번홀(파4)과 2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은 김경태는 4번홀(파5)과 5번홀(파4)에서 또 한 번 연속 버디쇼를 펼치며 전반에만 4타를 줄였다.  
김경태는 12번홀(파5)에서 버디를 보태고 나서 파 행진을 이어가다 17번홀(파5)에서 여섯 번째 버디를 기록해 기분 좋게 1라운드를 마쳤다.  
함께 출전한 허석호(38)는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내 가미 구니히로(29·일본)와 나란히 5언더파 66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김형태(34·토마토저축은행)도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바꾸면서 3언더파 68타로 공동 8위에 오르는 등 1라운드에서 한국 선수들이 톱10에 3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무너진 KIA 마운드 김진우 투입?

복귀 움직임 가시화... 박정태 1군 등록 불펜 강화



5선발 체제로 전환 조변현 감독이 교체 카드를 빼들었다.  
KIA 타이거즈가 14일 투수 신용운을 2군으로 내리고 좌완 박정태를 1군으로 불러들였다.  
경험 많은 신용운은 노련미로 KIA 불펜에 힘을 더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지만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 못했다.  
13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1과3분의 2이닝 동안 1피안타 2사사구 2실점(1자책)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긴

신용운은 14일 좌완 박정태에게 자리를 내줬다.  
지난 10일 외야수 김다원 대신 좌완 심동섭이 엔트리에 등록되면서 KIA의 투수 엔트리는 총 13명이다. 11명을 투수로 구성한 두산을 제외한 6개 구단이 12명의 투수를 엔트리에 등록한 것에 비해 한 명이 더 많다.  
예상치 못한 불펜 난조에 봉착하면서 ‘물량공세’를 위기 해결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선발진의 동반 부진까지 더해지면서 6선발에서 5선발 체제로 돌린 KIA는 전체 엔트리의 절반을 투수로 채운 뒤 박정태를 통해 좌완 불펜진

강화에도 나섰다. 박정태 홀로 책임 지던 좌완 불펜진에 박정태·심동섭을 가세시키며 구역을 맞췄다.  
‘풍운아’ 김진우의 복귀 움직임도 가시화 되고 있다.  
12일 이강철 투수 코치는 재활중인 김진우를 만나 컨디션을 점검했다.  
지난 1월 팔 캠프에서 복귀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던 김진우는 무릎 통증으로 중도 귀국을 한 뒤 재활조에서 훈련을 해오고 있다.  
김진우는 현재 임의탈퇴 신분이라 2군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는 상황. KIA 마운드의 안정세가 더더진다면 김진우의 임의탈퇴 해제 수순도 빨라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문화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